



# 망각과 기억 사이를 뚫고 나온 구술의 힘은 경이로웠다

김성희

연극평론가·한양여대 문예창작과 교수

## 거대한 도서관들을 만나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노인이 작고하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이 있다. 필자는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사업’ 작업을 다섯 번에 걸쳐 맡게 되면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실감했다. 한국근현대극의 산증인이라 할 구술자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분의 삶의 역사와 문화적 기억들을 질문하고 듣는 과정은, 생생한 기억의 말들로 지어진 도서관의 건축 과정 그 자체였다. 문헌에 고정되어 생기를 잃은 글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망각과 기억의 사이를 뚫고 나온 구술의 힘은 매우 경이로웠다. 기억의 구술로 이루어진 그 도서관들은 모두 구술자 선생님들 각자의 개인사와 세계관, 문화적 경험, 그리고 독특한 말맛과 기억의 방식에 따라 저마다 색다른 양식을 보여주었다.

사실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사업’에 참여하기 전까지, 필자는 구술사 채록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었다. 그러나 <한국구비문학대계>나 <뿌리깊은나무> 등의 민중 구술채록

을 통해 구술사의 풍요롭고 생동감 넘치는 세계와 그 역동적 힘에 대해선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김동원, 차범석, 여석기, 이병복, 김정옥 선생님의 구술채록을 맡게 된 것은 한국연극사 연구자로서는 매우 뜻깊은 체험이었고 소중한 기회였다. 이 다섯 분의 구술자 선생님들은 한국근현대극을 대표하는 연극인들이므로, 평소 그분들의 연극적 경험이나 업적, 연극사에 대한 소회를 직접 들을 기회를 열망하고 있었던 차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분들은 각각 배우, 극작가, 평론가, 무대미술가, 연출가인만큼 필자로서 연극을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다각적 관점과 역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던 것이다.

다섯 분 중 두 분은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그야말로 두 채의 ‘거대한 도서관’이 사라진 것이다. 2006년 5월과 6월, 김동원 선생님과 차범석 선생님이 3주 간격으로 연이어 타계하셨다. 두 분의 타계는 한국연극계로서는 커다란 상실이고, 한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고하는 조종(弔鐘)이었다. 그분들의 타계에 한없는 슬픔을 느끼는 한편, 고령의 문화예술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시바삐 구술채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새삼 깨달았다.

#### **배우 김동원, 극작가 차범석, 평론가 여석기, 무대미술가 이병복, 연출가 김정옥…**

다섯 분의 구술채록 작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문화적 사건들에 대한 기억과 관점, 인품, 구술 스타일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 따라 다채롭게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었다. 김동원 선생님(1916~2006)은 원로 배우답게 주로 연기를 중심으로 구술해주셨다. 89세의 고령으로 전반적인 기억력이 많이 쇠퇴하셨음에도 배우들의 연기나 대사에 대해서는 놀라운 기억을 유지하고 계셨다. 변사의 연기라든지 신파극의 연기, <춘향전>의 대사 한 토막을 실연해주신 점도 매우 흥미로웠다. 차범석 선생님(1924~2006)은 경이로운 기억력을 갖고 계셨는데, 극작과 연출, 극단 대표, 평론, 연극교육, 연극행정 등 다양한 분야를 고루 섭렵해오신 분답게 연극 전 분야에 대해 거침없는 견해를 달변으로 펼치셨다. 극작가다운 뛰어난 입담과 이야기 구성 능력으로 일제 강점기와 해방공간의 개인사와 사회사 및 연극사를 세밀하고도 논쟁적으로 구술해주신 게 펍 인상에 남는다. 여석기 선생님(1922~ )은 영문학자이자 평론가답게 폭넓은 식견과 관점으로 연극계의 사건들에 대해 구술하셨다. 현장 체험적 이면사(裏面史)라기보다는, 현

장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관찰하거나 관여해온 구술이었다. 연극사적 사건들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동서양을 아우르는 깊이 있는 안목으로 해석해 내셨다. 이병복 선생님(1927~)은 무대미술가이자 극단 대표, 여성 연극인답게 뜨거운 열정과 순수함과 솔직함을 분출하셨다. 명문가에서의 성장과 가족관계, 정지용, 설정식 등 좌익 문인들과의 교류, 부친의 납북, 전쟁기 인공 치하의 서울에서 가족을 구하기 위해 서울시 인문위원회 문화선전부에서 일하던 정황, 9.28 수복 후 좌익으로 몰려 총살당할 뻔하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일 등의 구술 내용은 한국근대사를 요약하는 한 편의 드라마 그 자체였다. 김정옥 선생님(1932~)은 시인이자 자유극장을 창단한 연출가답게 개인사와 자유로운 예술 정신, 자신의 연출 작업에 대해 틀에 얽매이지 않는 분방한 구술 방식으로 표출하셨다. 이 글에서는 한정된 지면 관계상 김동원 선생님의 경우를 예로 들어 구술 체험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 첫 면담, “너무 늦게 시작했어. 이제 나이가 곧 구십인데...”

김동원 선생님과 구술채록 작업은 2004년 3월 12일부터 4월 9일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5차에 걸쳐 선생님 자택에서 각각 2시간씩 진행되었다. 김동원 선생님은 1934년 일본에서 조직된 ‘동경학생예술좌’의 창립동인으로 시작하여, 해방 후 신협, 국립극단에서 활동하다가 1994년에 은퇴하기까지 줄곧 한국연극의 중심에서 활동하신 원로 배우이다. 그래서 필자는 김동원 선생님으로부터 동경의 신극 단체 활동이나 쓰키지(築地) 소극장의 연극, 한국근대극의 형성 과정, 신극의 연기술과 무대술, 신파극의 연기와 연출 스타일, 일제시대에 활동한 많은 연극인들에 대한 증언 등을 기대했다. 특히 선생님의 회고록 <미수의 커튼콜: 김동원 나의 예술과 삶>이 한 해 전인 2003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책을 미리 읽고 선생님의 개인사와 ‘문화적 기억’에 대해 숙지를 하고서 선생님의 자택을 방문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선생님을 뵙고 구술채록 사업의 취지와 더불어 5차에 나누어 질문할 요지들을 말씀드렸다.

첫 면담 날, 필자도 긴장했지만 선생님은 더욱 긴장하신 듯 보였다. 선생님은 비디오 촬영을 염두에 둔 열은 분장과 단정한 양복 정장 차림으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미남배우로 연극무대와 스크린에서 주역으로, 혹은 품위 있는 역할만 맡아오신 선생님의 프로정신이 배어나는 모습이었다. 인터뷰 직전, 다시



배우 고(故) 김동원 선생

한 번 질문 요지를 말씀드리고 시작했는데, 긴장한 탓인지 선생님은 말이 술술 풀리지 않아 당황해 하셨다. 단답형으로 얘기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호하게 대답하시는 바람에 필자도 같이 진땀을 흘렸다. 그래서 잠시 중단하고 차를 마시면서 사모님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필자가 한 가지씩 짧은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답을 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물론 구술자의 구술 방향이나 담론을 연구자의 계획이나 기대 지평에 맞추어 유도하면 안되지만, 구술이 잘 안 풀릴 경우엔 구술자의 기억이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내기 위해 미리 구술자에게 구술 요지를 정리할 시간을 주고 격려한 후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은 89세의 고령으로 인해 오래된 과거의 기억을 구체적으로 되살리는데 어려움을 느끼셨다. 어떤 부분은 기억이 끊기기도 했고, 혹은 다른 기억들과 영켜 있기도 했으며, 어떤 내용은 아주 모호하고 추상적인 느낌만 남아 있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미 회고록에 기술된 부분은 기억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서 더 이상의 진전 없이 똑같은 내용만 구술하기도 했다. 사모님이 “너무 늦게 이 작업을 시작했어. 이제 나이가 곧 구십인데 뭐... 진즉 작업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며 몇 번이나 안타까워하면서 개입하기도 했다.



고 김동원 선생의 은퇴 무대 <이성계의 부동산>(1994)의 프로그램. 활동 당시의 모습들과 '고별사'가 담겼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6.25 때 납북되어 탈출하기까지, 생사의 기로에 섰던 경험만큼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으며, 연구자가 끼어들 틈도 없이 길게 구술을 하셨다는 점이다. 이 점은 비단 김동원 선생님만이 아니고 다른 구술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병복 선생님의 경우, 해방공간과 전쟁기에 관한 체험담은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도 좋을 정도로 매우 극적인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었다. 분단의 비극과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개인 삶의 차원에서 집약된 '민중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처럼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극한의 체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고정될 뿐 아니라, 이후 삶의 깊이나 진정성, 예술적 완성의 경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아래로부터의 역사'로 불리는 구술사가 가장 생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도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 두번째 면담, 변사 연기를 재연하다

김동원 선생님은 1차 구술을 진행한 뒤 말씀이 생각대로 술술 안 나오고 '튀었다'며 몹시 안타까워 하셨다. 그래서 2차부터는 시작하기 전에 30여 분 동안 질문드릴 요지를 말씀드리고 선생님이 얘기하실 내용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자 훨씬 안정된 상태에서 차분하고 자세하게 구술하실 수 있었으며, 필자의 격려에 더욱 자신감을 회복해서 연기 몇 토막을 소개해주시기도 했다. 특히 그동안의 문헌 연구사에선 알 수 없었던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구술을 통해 밝혀졌다는 점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일제시대 무성영화

의 변사 연기나 신극 연기, 신파극 연기를 직접 재연하셨는데, 이것은 구술채록 작업만이 가질 수 있는 ‘과거의 재현’의 실례라 할 것이다.

- 김성희 선생님, 당시에 그 변사에 관한 에피소드 있으면 얘기해주시죠?
- 김동원 (웃음) 예, 레코드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사 주고 그랬거든요. 그 자꾸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지더라고요. 『예 예』 김조성이라는 사람인데 예... 변사가 아주 유명해요. 아주 멋있게 허거들랑은. (변사 연기 재연) “혜성이 흐른다. 이른 밤 검은 하늘에 꽃피는 화살같이 혜성이 흐른다. 이는 전로국 전선에 응하여야 촌이면 촌, 도회면 도회, 남녀노소는 창문을 박차고 뜰 밖에 나선다. 아이구 마님, 도련님 오실까요? 용수철같이 뛰어 들어온 카츄샤는 경대를 향하여 단장을 하려다가 그나마 부끄러워 후원으로 도망갈 때 카츄샤의 얼굴은 백일홍같이도 붉어지고 떨리는 가슴은 까닭조차 모르고 하늘을 우러러 축수한다. 때는 부활제의 밤, 먼 곳에서 은은히 들려오는 종소리, 땡 울리는데...” (웃음) 안 되는데요. 오래 돼서...
- 김성희 아, 정말 굉장히 감동적으로 오네요.
- 김동원 (웃음)
- 김성희 근데 신파극의 대사랑 약간 좀 비슷한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 김동원 예?
- 김성희 신파극, 신파극.
- 김동원 그, 그렇죠.
- 김성희 좀 이렇게 어조가...
- 김동원 그럼.
- 김성희 톤이 비슷하네요?
- 김동원 그럼, 그래요. 변사가 원체 그래요. 변사가 그런 조성을 다하고...
- 김성희 그럼, 그건 신파극에서 영향을 받은 걸까요?
- 김동원 글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전에 그런 쪼가 꼭 들어가니까...

(2003년도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02 김동원), 39~40면

**일본 극단의 <춘향전>, “한마디로 잘해요. 가부키식으로 하는데 기가 맥히게 잘해.”**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1930년대 일본인 극단에 의한 <춘향전> 공연의 실체를 밝힌 점이다. 김동원 선생님이 속한 동경학생예술좌가 1937년 일본의 쓰키지 소극장에서 공연한 <춘향전> 공연을 보고, 일본 연극인들이 일본어로 공연을 했다는 것이다.

김동원     우리 거 보고 <춘향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가지고 자기네가 했죠. 그래가지고 장혁주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일본말로 썼다고. 그런데 참 잘했어요.

김성희     일본 사람 공연이요?

김동원     일본 사람 잘했어요.

김성희     그럼 내용은 어떻던가요? 유치진 선생님의 원작하고.

김동원     그거하고 비슷해요.

김성희     비슷한데 좀 다른가요?

김동원     조금 뭐 다르다고 그럴까 아마 유치진 씨 거 번역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참 잘 하더군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다 잘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참 연기들을 잘해.

김성희     선생님이 거기서 이 도령 역할도 하시고 (함께 웃음) 하셨는데 그쪽하고 같이 연기를 비교해 보니까,

김동원     거기는 여자가 이 도령을 했다고.

김성희     특이하네요.

김동원     여자는 여자, 춘향이는 영화배우가 하고, 이치가와 하루오라고 영화배우가 하고.

김성희     저 여자요, 이치가와 하루오.

김동원     하루오, 춘향이.

김성희     예 그러니까 여기는 여배우죠. 영화배우

김동원     영화배우라고. 연극은 별로 안 한 사람이야. 근데 영화배우 갔다가 싫증난 거지. 그리고 이 도령은 여자가 했고.

김성희     특이하네요. 어떻게 발성이 아무래도 이렇게 성이 바뀌니까 부자연스러울 거 같은데.

김동원 그래도 잘했어요.

김성희 연출은 누가 한 건가요?

김동원 무라야마 토모요시.

김성희 아, 촌산지의

김동원 촌산, 촌산지의.

김성희 예, 촌산지의. 그러면 여기가 극단, 극단도 갖고 계셨었죠? 여기가 극단의 이름으로.

김동원 무라야마.

김성희 예, 촌산지의가.

김동원 신희인가?

김성희 예, 신희 극단, 신희. 여자가 이도령 했다는 게 참 특이하네요.

김동원 응?

김성희 여자가 이도령 역을 했다는 게 특이한데.

김동원 일본서 그렇게 했어. 근데 한국에 한국공연 나올 적에는 남자가 했죠.

김성희 아, 한국공연도 나왔어요?

김동원 그럼. 서울서도 했어요.

김성희 언제?

김동원 그게 언제더라?

김성희 이게 저도 박용구 선생님한테 전에 얼핏 들었어요.

김동원 이게 아주 가부키 식으로 다 했다고.

김성희 아, 가부키 스타일로?

김동원 근데 아주 멋있어. 가부키 식으로 하니까 아주 잘했어.

김성희 예에. 그러니까 우리 학생예술좌가 이도령, 〈춘향전〉을 했을 때는 리얼리즘 연기로 했을 거고 여기는 가부키 식으로 일본 전통극을 살려 가지고 음, 그렇게 비교가….

김동원 아주 멋있더라고 아, 가부키를 참 잘했어.

김성희 서울에 와서 공연을 할 때도 역시 가부키 식으로 했겠네요?

김동원 근데 여기서 이도령은 다끼자와 오사무가 했죠.

김성희 아, 이도령 역을 서울 공연에서는 네에….

김동원 서울에서는 남자가 했다고.  
 김성희 선생님, 이 공연도 보셨어요?  
 김동원 응?  
 김성희 이 공연도 보신 거예요?  
 김동원 그럼요. 여기서 나와서도 봤죠. 일본서도 보고,  
 김성희 비교할 때 어떠셨어요?  
 김동원 잘해요. 하여간 한마디로 말해서 잘해요. 그 멤버 고대로 왔는데 그  
 니까 이 도령만 바꾸고 한국 나올 적에 고대로 나왔다구. 변학도니  
 뭐니 차암 잘 하더라고. 가부키식으로 하는데 기가 맥히게 잘해.  
 김성희 그러니까 양식화된 연기로 하고,  
 김동원 그렇지.  
 김성희 의상은요?  
 김동원 의상은 한국.  
 김성희 한국 의상으로...  
 김동원 그대로 다. 다 그대로 한 거예요.  
 김성희 예에, 분장은 가부키 식으로 한 건가요? 그러면...?  
 김동원 어느 정도 가부키 식으로 했죠.  
 김성희 참 특이하네요.  
 김동원 하여간 내 생각엔 그래, 한국 사람들보담 더 잘했어. 그렇게 잘했어.  
 김성희 대사 발성이 가부키 식의 대사대로...  
 김동원 했는데 아주 멋있어. 그게 좋더라고. 가부키화하니까 아주 색다르고  
 좋더라고. 그리고 그게 시대극에 딱 맞고.

〈2003년도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02 김동원〉, 62~65면

이상은 일본 신극인 무라야마 토모요시가 연출한 일본극단 신헌의 〈춘향전〉 공연에 대한 증언이다. 그 공연 스타일이 가부키 스타일이었으며 이도령 역을 여배우가 맡았다는 것, 그리고 한국 공연 때는 이도령 역을 김동원 선생님이 가장 존경하고 영향을 받은 남배우 다키자와 오사무가 맡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장혁주 작 〈춘향전〉은 황문평이나 박용구, 박노홍 같은 분의 증언에 의해 가극 혹은 세미 뮤지컬 형식, 일본 다카라스카 공연 등으로만 알려져왔다. 이 구

술을 통해 필자는 무라야마 토모요시의 저술을 찾아 읽고 교토, 오사카, 도쿄 3도에서의 일본 공연(1938)과 내한 공연(1938)의 실상을 밝힐 수 있었다. 이 구술채록 연구서가 발간된 후, 일제 강점기 <춘향전> 공연사에 대한 연구자의 논문이 발표되기도 하는 등, 관련 연구가 촉발되기도 했다.

구술채록 과정에서 가장 걱정이 된 부분은 구술자의 고령으로 인한 체력 저하나 건강 문제였다. 김동원 선생님은 2주째부터는 감기에 걸리셔서 기침도 자주 하셨고, 5차까지 진행해나가는 동안 감기가 낫지 않고 계속 건강이 안 좋으셔서 나중엔 링거를 맞기까지 하셨다. 그럼에도 선생님은 약속시간에 방문하면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으로 기다리고 계셨고, 건강 상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구술을 해주셨다. 그래서 구술채록 작업은 잘 끝낼 수 있었지만,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은 두고두고 마음을 아프게 했다.

### 거짓 구술도 또 하나의 진실이다

문헌을 통해 한국연극사를 공부할 때마다 드는 의구심은 ‘신문기사나 자료, 리뷰 등을 통해 해석한 연극사적 사건이나 자리매김이 과연 진실인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직접 체험한 연극인의 진실도 밀받침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들이었다. 연극은 막이 내림과 동시에 사라지는 일회적 예술이기 때문에 기사나 리뷰 등의 2차 자료에 의존하여 당대의 공연을 해석하고 평가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근거자료로 삼은 기록이 과연 어느 정도 객관성이나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관점이나 해석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곤 했다.

한편, 구술채록의 경우 구술자의 입장과 경험, 상황, 예술적 소신, 인간관계 등이 미묘하게 얽힌 가운데서 기억을 토대로 나오는 것이므로 편파적일 수 있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실을 말하거나 심지어는 거짓을 말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문헌자료만을 사료로 취급해온 학계에서는 ‘구술채록’의 중요성이나 의미를 폄하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증언연극사> 같은 여러 연극인들의 회고록도 제각기 상충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거나, 당시 문헌기록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증언’의 주관성과 왜곡 가능성을 말해주는 증좌이다. 그러나 구술 자체를, 과거에 쓰인 기록이나 연극사 저술보다 가치가 없다고 도외시한다면

‘삶으로서의 역사’를 배제하고 은폐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물론 인간의 기억이나 인식은 상상이나 왜곡, 편파성을 담고 있으며 심지어는 거짓 정보를 포함하는 것도 사실이다. 누구나 살아오면서 진실이라고 믿었던 기억이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나서 당황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인간은 현실세계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꿈과 상상 속에서 사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술사에서 배제되는 주관성과 자의성과 상상의 기억은 오히려 구술자의 ‘삶의 역사’와 그 시대의 억압과 문화적 기억을 더 많이 이야기해주는 사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구술의 주관적 담론은 역사인식의 지평을 기록 자료로부터 벗어나 비실증적 부분으로까지 확대하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채록 연구자의 몫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많은 문헌자료와 동시대 현장에서 활동한 예술가들의 경험과 여타 증언 기록들을 크로스체크하여 구술자의 미묘한 증언의 주관성과 자의적 해석, 왜곡 같은 틈새와 모순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리고 그 틈새를 파헤치는 질문을 던져서 객관적 사실과 구술자의 자의적 해석, 상상, 혹은 왜곡과의 차이가 드러나게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들을 던졌을 때 구술자가 자세한 기억이나 지식이 없어서 더 이상 심층적인 내용으로 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술자의 말 한마디가 (일본극단 신헌의 <춘향전> 공연에 대한 김동원 선생님의 구술처럼) 아직 조명되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끌어내주는 경우가 되기도 한다. 또, 구술자가 거짓 정보나 편파적 인식을 갖고 있다 해도, 이를 ‘다른 방식으로 진실을 전하는 경우’로 받아들여 그 이면을 연구하고 해석함으로써 더 많은 진실을 찾아내는 계기로 전환시킬 수 있다. 연구자가 충분히 많은 자료들을 크로스체크해서 접근하고 해석한다면 거짓 정보로 가리려 했던 이면의 심리와 시대상황을 포함한 보다 중요한 진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술 사료에 대한 사료’ 즉 다양한 자료들을 통한 보완은 필수적이다.

필자는 다섯 분의 원로 연극인들을 모시고 구술채록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사전 연구가 턱없이 부족해서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자괴감을 감할 수 없다. 구술자에 대한 연보 작성과 연구계획서 작성, 구술채록 일정이 매우 빡빡했고, 녹음을 되풀이

들으면서 채록문을 감수하고 각주를 다는 작업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일이었다.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의 5회 면담 내용을 읽어보면서 상세목록과 핵심어들을 작성하고, 교정 보고, 여러 문헌들을 참조해가며 구술 작업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각주 달기 등은 매우 지난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구술채록 사업이 연구자에게 주는 매력은 그러한 힘들을 감수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 일 외에는 다른 연구 작업을 못할 정도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해야지.’ 하고 생각하다가도, 막상 구술채록을 의뢰하는 연락이 오면 새로운 구술자 선생님의 생동감 넘치는 구술을 듣고 싶은 생각에 금방 응하곤 했다.

구술사는 딱딱한 자료와 실증적 논리로 무장된 문헌 역사와는 다르게, 시대와 삶과 치열하게 직면하게 해주고 생생한 인간적 체취를 전해주는, 삶으로 쌓아올린 ‘도서관’이다. ‘한 노인이 작고하면 하나의 도서관이 사라진다’는 속담의 경고를 살려서, 각 분야의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구술채록 연구는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술사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더불어, 공공과 민간의 문화예술 단체는 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글쓴이 **김성희** 연극평론가, 문학박사.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 동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희곡이 당선됐다. 현재 한양여자대학 문예창작과 교수로 있다.